

동아시아 역사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탐색하는 지난(至難)하고 유의미한 공동의 작업

배항섭·이경구 엮음, 『비교와 연동으로 본 19세기의 동아시아』(19세기의 동아시아 4, 너머북스, 2020)를 읽고

조영현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키워드 되새기기: ‘동아시아(사)’와 ‘19세기’

본서는 2015년 출간된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 엮음, 너머북스, 2015)에서 시작된 〈19세기의 동아시아〉 시리즈의 네 번째 결과물이다. 첫 번째 결과물부터 최근에 출간된 다섯 번째 결과물까지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출간되었기에 네 번째 결과물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전체 시리즈의 제목과 엮은이부터 감상할 필요가 있다.

- ① 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 엮음,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2015
- ② 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 엮음,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보면?: 역사의 길목에 선 동아시아 지식인들』, 너머북스, 2017
- ③ 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이경구 엮음, 『19세기 동아시아를 읽는 눈: 지속과 변화, 관계와 비교』, 너머북스, 2017
- ④ 배항섭·이경구 엮음, 『비교와 연동으로 본 19세기의 동아시아: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발견』, 너머북스, 2020
- ⑤ 배항섭 엮음, 미야지마 히로시 외 지음, 『동아시아의 근대 장기지속으로 읽는다』, 너머북스, 2021

5권 전체 시리즈의 제목에 모두 등장하는 단어는 ‘동아시아’(6회)이고, ‘동아시아사’는 두 차례 등장한다. 또한 ‘비교’와 ‘(장기)지속’이라는 개념어와 ‘새로운’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19세기’라는 시기 구분도 2회 등장하고, ‘지식인’, ‘변화’, ‘관계’, ‘연동’은 각각 1회 등장한다. 횡수로만 본다면 관통하는 키워드인 ‘동아시아(사)’가 주인공임에 틀림없고, ‘19세기’를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장기)지속’과 ‘비교’가 조연이라 볼 수 있겠다.

엮은이의 변화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5차례 모두 등장하는 엮은이는 배향섭이고, 미야지마 히로시는 3차례, 이경구는 두 차례 등장한다. 마지막 5권은 공동이 아니라 배향섭이 단독으로 엮은이로 등장함으로써, 사실상 배향섭이 전체 시리즈를 추동하는 선장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야지마 히로시와 이경구는 협력자로 볼 수 있지만, 4권을 제외한 모든 시리즈에서 첫 번째 저자로 등장할 뿐 아니라 3권에서는 “동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라는 도입 글을 기고한 미야지마 히로시는 사실상 본 시리즈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며 배향섭과의 공동 구상을 통해 본 연구 공동체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흐름과 키워드를 상기한 상태에서 서평의 대상인 네 번째 시리즈의 제목과 엮은이를 보면, 일견 특징으로 보이는 것이 ‘비교와 연동’이라는 관점의 제시 및 엮은이와 필자 가운데 미야지마 히로시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후자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논의의 편의상 제목에서 발견되는 본서의 특징과 지향점부터 짚어 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다만 ‘비교’와 ‘연동’이라는 지향점은 기본적으로 ‘19세기 동아시아사’라는 불변의 문제의식을 조명하는 네 번째 시리즈의 키워드이기에, 우선 ‘19세기’와 ‘동아시아사’라는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엮은이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비평을 시작하고자 한다.

II. 왜 계속 ‘동아시아’ 담론에서 ‘19세기’에 주목하는가?: 서구 중심주의와 근대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플랫폼

한국사회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다. 이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 연구를 찾아본 독자라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담론이 여전히 ‘논쟁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학, 역사학, 문화 연구를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 상당히 보편적으로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¹ 2012년부터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깜짝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논의는 교육계로도 확산 일로에 있다.²

하지만 동아시아 담론을 전개함에 있어 ‘19세기’라는 시간에 천착하는 본 시리즈의 시각은 상당히 참신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모두 동아시아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역사적 접근을 함에 있어 19세기라는 특정 시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서를 비롯한 시리즈 전체에서 명시한 ‘19세기’는 1800년에서 1899년까지의 100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지속의 19세기를 뜻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표현은 19세기이지만 “주로 18~20세기 중반에 걸친 ‘근대이행기’”를 대상으로 한 19세기인 것이다.³ 좀 더 깊이 있게 역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장기)지속이라는 관점과 시야를 제시한 것은 브로델이 제기했던 ‘장기지속(longue durée)’이라는 시간관념과 에릭 홉스봄이 주창했던 ‘장기 19세기(The long 19th century, 대략 1789년에서 1914년까지)’라는 테제의 영향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동아시아> 시리즈의 제1권부터 출간 19세기에 주목했던 이유는 다른 세기와 달리 19세기가 “서구에서 형성되어간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가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수용되는 시기이자, 서구와 동아시아가 본격적으로

¹ 백영서(2013)과 조영현·조영현(2020)의 제7장 “동북아시아 속의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 그 궤적과 미래” 등 참조.

² 이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편(2020)에 실린 25명 학자의 25편의 글과 책 말미에 실려 있는 참고문헌 목록만 일람해도 쉽게 알 수 있다.

³ 배항섭 역음(2021: 9)의 머리말 참조. 반면 19세기 100년에 주목하여 그 이전인 18세기와와의 차별성에 주안점을 둔 작업으로는 김정인 외(2015)를 꼽을 수 있는데, 시점에 큰 차이가 있다.

로 만나고, 전근대와 근대의 결절점을 이루는 시기”였기 때문이다.⁴ 이 대목에서 본 시리즈의 선장 역할을 맡고 있는 배항섭이 매 시리즈마다 강조하고 있는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경계의식을 마주하게 된다. 즉 실제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가 생성되고 이식된 19세기를 장기지속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서구’와 ‘근대’라는 강고한 학문적 중심성으로부터 거리를 확보 하자는 전략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다. 장기 19세기라는 시기적 구분과 함께 선택된 동아시아라는 공간 역시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라기보다는 ‘서구’와 ‘근대’라는 두 가지 지적 헤게모니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로 제시되고 있다. 시리즈 1권에서 배항섭이 명확하게 제시했듯 “동아시아란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나아가 세계사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시각으로서의 ‘동아시아’”였던 것이고, 이는 서평자가 비평하려는 시리즈 4권에도 관통하는 공동의 문제의식이다. 즉 동아시아라는 다국적 지리 공간을 선택함으로써 “일국사적 접근” 및 그와 연동된 ‘국민국가’의 근대성 담론 혹은 근대성이라는 목적론적 접근을 경계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본서에서 제시한 ‘비교’와 ‘연동’으로 보는 동아시아 논이다. 본서의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엮은이 배항섭의 강조점을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배항섭은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 상호연관성과 비교사적 접근을 강조한 이유가 “일국사적 범위를 넘어서로 연동되는 모습, 그리고 일국사적 현상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은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가 말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동아시아사) 이해”는 무엇을 말함인가? ‘비교’와 ‘연동’에 대한 배항섭의 논리를 좀 더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를 통해 확인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없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그것을 초래한 배경이나 시대상, 나아가 서로 얽혀 그 당시 사회와 체제를 구성하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전체적 파악을 요구하게 된다.”(11-12쪽) 비교의 미덕은 “전

⁴ 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 엮음(2015: 22-23)의 “머리말” 참조.

체적 파악”이 가능함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일국사를 넘어선 ‘연동’이라는 시각은 “특정한 현상들이 일국사 안에만 국한된,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넓은 연관성 속에서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와 얽혀 있는 산물임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특정한 국가 혹은 국가 내부의 작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현상이나 상황들이 반드시 그 나라나 그 지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뛰어넘어 지역과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12-13쪽). 연동의 미덕은 초국가적 연결성(connectedness)을 발견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⁵

그동안 중국사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장기지속을 강조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의 의미를 모색했던 훌륭한 저서가 나온 바 있었다.⁶ 저자인 이스트만(Lloyd E. Eastman)은 1550년에서 1949년이라는 4백 년의 긴 역사를 왕조의 변화나 혁명 과도 같은 ‘변화’의 측면보다 인구, 가족, 민간신앙, 상업 등 장기간 ‘지속’되었던 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20세기 중국을 이해하는 길라잡이를 마련해 주었다. 다만 그의 저서에는 중국에 대한 일국사적 관점만 담겨 있어 동일한 시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적인 맥락까지의 비교 관점은 결여되어 있었다.

최근 중국계 미국인 학자 송넨선(宋念申, Song Nianshen)의 연구는 일국사적인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라는 역사 단위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중국·한국·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재발견’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그녀는 유럽중심주의를 경계하고 반성하면서 ‘동아시아 현대’를 정리하고자 그 현대의 기점을 16세기 후반 임진전쟁(책에서 ‘조선전쟁’이라 명명한다)부터 고찰한다. 여기서 “유럽을 참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수용한다는 뜻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배척한다는 뜻도 아니다. 유럽중심주의를 반성하지만, 동아시아(또는 중국)중심주의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즉 유럽중심주의에서 언급한 근대성을 유일한 지향점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⁵ 지리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미래적 가치로 연결되는 지구적 차원의 연결성(connectedness) 개념은 카나(2017)을 참조.

⁶ 이스트만(1999). 본서의 원제목은 *Family, Fields, and Ancestors: Constancy and Change in China's Social and Economic History, 1550-1949*(Oxford University Press)이고 1988년에 영문 초판이 출간되었다.

것인 동시에,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결코 고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끼치고 수용하면서 오늘날의 ‘동아시아 현대’를 이루었다는 관점이다. 여기서 일국사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경험을 비교와 연동으로 보려는 본서의 문제의식과 공명하는 송넨선의 언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일본, 한국의 역사를 나누어 서술하는 것은, 가까운 과거에 비로소 형성된 민족국가의 경계를 강화하고 삼자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쉬우며, 반면 그들 내부의 다양성이나 동아시아 사회가 장기간 교류해온 가운데 형성한 밀접한 관련성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초국사(transnational history)·지역사·지구사의 시각을 채용하는 까닭은 “경화된 국가의 경계에 도전하고 세계를 고립된 개별 단위의 콜라주로 파악하는 시각을 거부하며 아울러 초사회적인 인구·물자·제도·사상의 이동을 통해 동아시아 사회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때문”인 것이다(송넨선, 2020: 8-9, 12-13). 적어도 “동아시아 사회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탐색한다는 송넨선의 문제의식은 〈19세기 동아시아〉 시리즈의 문제의식, 특히 본서의 주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서의 문제의식이 본문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II. ‘비교’와 ‘연동’이라는 키워드가 유기적으로 본문에 반영되었나?

본서는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상은 10명 필자의 9편 논문이 3개의 큰 주제로 분류된 것이다.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비평의 편의를 위해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부. 비교: 국가·사회를 둘러싼 생각들

1장.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과 폭력: 정당성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배향섭)

2장. ‘중화’ 해체의 두 가지 길: 홍대용과 스기타 겐파쿠 비교 연구(이경구·이예

안)

- 3장. 류큐왕국과 조선왕조 족보의 비교 연구(손병규)
- 2부. 비교와 연동: 경제·사회의 구성과 운용
- 4장. 17~18세기 조선의 화폐 유통과 은(권내현)
- 5장. 동아시아 근세 시장구조와 농촌공업: 청대 강남지역과 에도시대의 비교를 중심으로(홍성화)
- 6장. 보갑의 동아시아: 20세기 전반 대만·만주국·중국의 기층 행정조직 재편과 그 의미(문명기)
- 3부. 연동과 교류: 사유와 문화
- 7장. 연암그룹의 이적 논의와 『춘추』(조성산)
- 8장. 19세기 조선에 수용된 중국의 역사적 인물 도상(고연희)
- 9장. 동아시아 공덕·사덕 담론과 근대 주체 기획(이행훈)

아마 독자들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읽고 곱씹어 보아야만 세 가지 큰 주제 아래 묶인 3편의 글들이 각 주제별로,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주제와 논점이 다양하다. 무엇보다 분석의 단위와 체계에서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 3부의 주제어인 ‘비교’, ‘비교와 연동’, ‘연동과 교류’가 사실상 유사한 방법론을 키워드의 변형을 통해 차별화하려고 노력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주제어의 뒤에 붙어 있는 부제가 훨씬 구별이 쉽다. ‘국가·사회를 둘러싼 생각들’, ‘경제·사회의 구성과 운용’, ‘사유와 문화’. 그런데 이는 기존의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라는 구분과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본서의 1부, 2부, 3부는 각각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에 해당하는 개별 논문을 본서의 문제의식 속에 모아놓은 콜라주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본서를 정독해 보면 첫인상과는 달리 9편의 글이 상당히 농밀하게 엮은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후술하듯 10년 가까이 엮은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 공동체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결과일 것이다. 특히 본서에 참여한 10명이 필자 가운데 전체 시리즈 5권 가운데 5번 모두 참여한 배항섭과 문명기, 4번 참여한 손병규, 3번 참여한 이경규, 권내현, 조성산의

글은 전체 주제의 문제의식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

서평자가 개별 9개의 글에 대하여 개별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능력을 넘어서는 일일뿐 아니라 실제 본서의 집필의도와도 동떨어진 작업일 것이다. 이에 ‘비교’와 ‘연동’이라는 키워드로 개별 논문이 19세기 동아시아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감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교’의 관점에서 본 19세기 동아시아는 어떠한가?

본서에서 ‘비교’의 관점을 전면에 표방한 부분은 1장, 2장, 3장, 5장, 6장이다. 1장에서 배항섭은 19세기 활발해진 민중운동을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서구의 사례까지 비교하면서 폭력의 강도를 민중운동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기반과 연결하여 분석했으며, 2장에서 이경구와 이예안은 중국발 화이관(華夷觀)이 18세기 후반 한국과 일본에서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해체되는 과정을 홍대용의 「의산문답(醫山問答)」과 스기타 겐파쿠의 『광의지언(狂醫之言)』이라는 두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분석했으며, 3장에서 손병규는 족보와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류큐와 조선의 사례를 들어 비교했으며, 5장에서 홍성화는 16~18세기 중국의 강남과 일본 전역의 시장구조를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농촌 수공업의 양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했고, 6장에서 문명기는 향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청대 광범위하게 활용되던 보갑제가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만과 만주국, 그리고 남경 국민정부의 대륙 통치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적용되었는지를 비교하는 동시에 대만의 ‘성공적’인 보갑제가 일본의 자율적 기층사회인 무라(村)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삼국을 기본으로 국민국가인 중국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대만과 만주국의 사례까지 포괄하는 미시적인 비교가 이루어졌다. 다만 비교의 소재는 민중운동, 화이관념, 족보, 시장구조, 보갑제 등 유사성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층위와 분야가 다양했다. 시기 역시 19세기에 집중한 배항섭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18세기 후반(2장), 17세기~19세기(3장), 16~18세기(5장), 20세기 전반(6장)까지 다양했다. 그야말로 장기 19세기라는 용어가 없이는 하나로 엮기 어려운 조합이지만, 그 속에서 전통과 근대의 지속과 변화라는 장기간의 흐름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동’의 관점에서 본 19세 동아시아는 어떠했을까?

‘비교’와 ‘연동’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연동하는 동아시아’에 방점이 있는 부분은 4장, 7장, 8장, 9장이다. 4장에서 권내현은 17~18세기 조선의 화폐 유통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이미 국제적인 기축 통화로 활용되며 유통성이 강했던 은(silver)의 특성을 활용하여 일본-조선-중국 사이의 은 유통과 연동된 조선의 화폐 정책을 분석하였고, 7장에서 조성산은 18세기 박지원 등 연암 그룹의 포용적인 이적관(夷狄觀)을 ‘조선만의 독창성’이라기보다는 동시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사상적 변화에 조응하면서 나온 결과임을 강조하는 등 ‘동아시아적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8장에서 고연희는 19세기 고종대 왕실 도서관 집옥재에 소장되어 있던 중국판화 서적에 실린 역사적 인물상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역사적 실존 인물에 대한 허구적 도상(icon)이라는 특징을 강조하였고, 9장에서 이형훈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친 근대 전환기 자위기의 시대에 일본, 중국, 한국에서 공론화된 공덕(公德)과 사덕(私德) 담론을 비교 분석하면서 서구의 윤리 담론 등과 착종된 공덕 담론이 동아시아 삼국 사이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분명 4편의 글을 함께 읽으면 일국사적 이해로는 도저히 해명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초국가적 접근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된다. 특별히 은 유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조선의 화폐 유통과 정책에 대한 4장 내용은 세계적인 은의 생산지와 소비지인 일본과 중국에 인접한 조선이 기존 상식과 달리 은 유통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음을 절감하게 해 준다.⁷ 이에 비하여 7장, 8장, 9장은 사상과 문화사에 관한 내용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기존의 한국사에서 시도 하던 대외 교류사 정도의 연계성 이상의 ‘유기적인’ 연동까지 상상하기는 곤란했다. 연암그룹이 수용했던 명과 청의 화이관, 집옥재에서 수집했던 중국 판화집은 쌍방향이라기보다는 일방향의 문화 전이 현상에 머무른 듯한 느낌이 강하고, 메이지 일본과 중국 량치차오(梁啓超)의 공덕, 사덕 담론의 동아시아 내의 유통과 조선 사회에서의 ‘결핍’은 시대적인 상황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기적인’ 공

⁷ 주로 중국과 일본의 은 유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적 맥락의 은 유통에 대한 기존 연구에 관한 정리는 조영현(2020)을 참조.

명(共鳴)이라는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개별 논문으로는 모두 흥미롭고 완결도가 높지만 정작 동아시아의 유기적 ‘연동’이라는 키워드로 묶어 놓으니 여러 개성이 산만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아쉬움은 서평자가 가진 관심의 한계와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평자가 본서에 걸었던 높은 기대는 본서가 첫 시도가 아니라 이미 10년이 다 되어가는 학문 공동체의 네 번째 결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5년 전 첫 번째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 보여주었던 ‘담대함’과 ‘참신성’의 깊은 인상을 잊지 못하는 서평자에게 이번 네 번째 결실은 유의미하지만 지난(至難)했던 공동의 연구작업에 대해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IV. 학문 공동체적 모색의 가능성과 한계

서평자가 기쁘게 본서의 서평을 맡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본서가 한두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2012년 1월부터 시작된 연구 공동체의 80여 회의 월례세미나와 10여 차례의 학술회의 지속적인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개별적인 연구를 선호하는 한국의 학계, 특별히 역사학계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수십여(?) 명의 연구자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모이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결과물을 우직하게 출판물로 엮어 내는 것을 응원하고 싶었다. 게다가 이 그룹은 특별한 학연이나 지연이 연구의 생명력을 주도하지 않는다고 느껴졌기에 더욱 그러했다.

서평자 역시 ‘19세기 동아시아’ 연구 모임에 두세 차례 참여하며 엮은이를 비롯한 주요 ‘19세기 동아시아’ 그룹의 열정과 독심에 크게 계발 받은 바 있었다. 그 간접적 결과물이 『엘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과 동아시아』(조영한·조영현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였다. 역사학자인 서평자와 문화 연구자인 동생 연구자(조영한)와의 협업과 공동 집필을 시도한 것이 그 첫 번째 영향이다. 아무리 형제라고는 해도 서로 다른 분과학문에 속하는 두 연구자가 의기투합하여 동아시아의 다중적 근대성에 대한 공저를 기획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19세기 동아시아’ 그룹의 공동작업과 문제의식에 깊이 공명하는 바가 많았다. 관련하여 북

수의 혹은 대안적 근대성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유럽중심주의’는 물론이거니와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이중의 경각심을 견지하려 노력했는데, 이는 ‘19세기 동아시아’ 그룹을 주도하는 배항섭과 미야지마 히로시의 글을 통해 받은 두 번째 영향이다. 게다가 장기 19세기라는 관점은 주로 15~18세기로 연구 시야를 좁혀 가던 서평자에게 19세기를 넘어 20세기가 처한 현실을 안목에 둔 전근대와 근대의 (단절과 변화에 비하여) 연속성에 보다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서평자는 이를 기존의 학회나 몇몇 대학 혹은 연구소 중심의 연구 모임과 사뭇 다른 대단히 의미 있는 학문 공동체의 모색이라 평가한다. 그러했기에 네 번째 결과물이자 ‘비교’와 ‘연동’에 방점이 찍힌 본서의 9편의 글이 엮은이의 문제 의식과 유기적으로 연동되기를 기대하며 서평에 임했던 것이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일까? 본서에 담긴 9편의 글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될 때마다 수도 없이 밑줄을 치며 읽었고, 또 동아시아 삼국 사이의 새로운 비교 관점을 발견할 때마다 노트에 옮겨 적었지만, 일독 후 남게 된 인상은 첫 번째 결과물처럼 강렬하지 않았다. 첫 번째 결과물은 선언적인 문제의식과 다수의 필진이 이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참신했지만, 5년 후에 나온 네 번째 결과물에서는 반복되는 비슷한 포맷과 아직 덜 ‘진화된’ 엮은이와 필진 사이의 유기적인 연동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사실 학문 공동체의 공동 작업은 지난한 작업이다. 역사학과 문화 연구라는 상이한 분과 학문이지만 동아시아의 다중적 근대성에 대한 형제 연구자의 공동 작업에 대한 백영서의 뼈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은 본서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구성상 유기적 연관도가 약하다는 인상”이 짙게 남으며, ‘근대성’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해” 아쉬우며, 그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경험을 나열하는 것은 “단지 기준점을 늘리고 다원화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구조적인 위계질서를 간과”하는 “너무 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백영서는 “근대 극복에서 핵심 난관인 (일국 차원에 머물지 않는) 자본주의 문제와의 본격적인 씨름”을 주문했다(백영서, 2020: 378-379). 서평자가 당면했던 동아시아 근대 담론과 관련한 핵심현장의 질문을 본서에 적용해도 된다면, ‘유럽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를 극복하는 ‘19세기 동아시아’ 시리즈는 19세기 동아시아가 실제 직면했던 ‘서양’과의 직접

적인 만남·충격·거절·절충의 복합적인 과정을 동아시아 내부의 오랜 관행과 지식의 힘과 연동해서 해석하는 씨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무리 천재적이라도 하더라도 개인 연구자 한두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지성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19세기 동아시아’ 그룹처럼 풍부하고 좋은 자원을 갖춘 공동체도 드물 것이다.

V. 저자 없는 공동체적 글쓰기와 교육 현장과의 연대를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본서를 비롯해 지금까지 출간된 5권의 ‘19세기 동아시아’ 시리즈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기대감 속에서 두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이는 서평자 역시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의 글쓰기이기도 하다.

하나는 다수의 글쓴이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 공동체적 글쓰기다. ‘19세기’를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장기)지속’과 ‘비교’ 혹은 ‘연동’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이전 문체의 변혁이 필요하다. 개별 연구자의 논문식 글쓰기 연구를 콜라주로 모아 놓는 것으로는 당면한 ‘유럽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부터 자유로운 19세기 묘사와 동아시아인들의 중층적인 문제의식을 실감나게 드러내는 데 한계가 명확한 것 같다. 서로 다른 분과 학문의 연구자들이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단계의 서술이 나올 때까지 상대방이 쓴 글을 윤독하고 상호 수정하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 요청된다.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서른 명 전후의 일본 ‘동아시아 해역사 연구회’가 3년 동안의 농밀한 공동 연구를 통해 출간한 『바다에서 본 역사: 개방, 경합, 공생: 동아시아 700년의 문명 교류사』는 좋은 모범이 된다(하네다, 2018). 그들은 “연구회를 빈번하게 열고 참가자 전원이 납득할 때까지 철저하게 의논하며 몇 가지의 개념과 역사의 시각, 역사 서술의 방법에 관해 공통의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다른 견해를 가진 연구자끼리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아 때로는 험악한 분위기에 빠지는 일”도 생겼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연구자에 의한 개별 연구로는 도달할 수 없는 단계와 확산력을 가진 규모가 큰

공동 연구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야말로 “학제 간 연구와 통섭(統攝, consilience)의 방법론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하네다, 2018: 388-389, 398).

다른 하나는 교육 현장과의 전향적인 연대와 소통이 담긴 글쓰기다. 앞서 언급한 쑹넨선이 유의미한 동아시아 ‘발견’을 한 것도 미국에서 비(非)미국사 학자는 지역사나 세계사 강의까지 맡아야 하고, 그 가운데 ‘교육’에 대한 혼련이 “연구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역에서 걸어 나와 더 폭넓은 시공간의 맥락에서 해석을 제시하게끔” 했으며, 이러한 교육이 다시 “그동안 익숙했던 과제에 대해 부단히 새로운 연상을 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연구의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쑹넨선, 2020: 10-12). 적어도 현재 한국은 세계 유일의 『동아시아사』라는 고등학교 교과목을 2012년 이래 유지하고 있다. 비록 그 태생이나 개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고 『동아시아사』는 10년이 되도록 개정 보완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2012년 탄생 당시의 체제에 얽매어 있어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하는 지역사 과목으로서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동아시아가 연동했던ダイナ믹을 상실한 채 한·중·일 역사의 단순 비교 나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사’와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를 균형감 있게 포착할 수 있는 『동아시아사』를 지향한다면,⁸ ‘비교’와 ‘연동’을 키워드로 하는 본서와 같은 학문적인 연구가 교육 현장과 보다 유기적으로 밀착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19세기 동아시아’ 그룹의 전체 시리즈 속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문장은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발하고, 새로운 역사인식”을 만들어 갈 것을 지향하는 ‘19세기 동아시아’ 학문 공동체에 이 지난하면서도 유의미한 공동 작업을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서평자 역시 이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투고일: 2021년 6월 22일 |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30일

⁸ 조영현·조영현(2020: 336-343)의 제8장 “『동아시아사』 교과서: 글로벌 히스토리력의 기능성” 참조.

참고문헌

- 김정인 외 지음. 강우천 편. 2015. 『19세기: 인민의 탄생』(민음 한국사, 조선 5). 민음사.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동아시아사 입문』. 동북아역사재단.
- 배항섭 엮음. 미야지마 히로시 외 지음. 2021. 『동아시아의 근대 장기지속으로 읽는다』. 너머북스.
- 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 엮음. 2015.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 백영서. 2013. 『핵심 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공생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창비.
- _____. 2020. “(서평)엘로우 퍼시픽이란 시각의 득실: 핵심현장에서 말 걸기: 조영한·조영현 지음, 『엘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과 동아시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를 읽고.” 『아시아리뷰』 제10권 제2호, 378-379.
- 송넨선(宋念申) 지음. 김승욱 옮김. 2020. 『동아시아를 발견하다: 임진왜란으로 시작된 한중일의 현대』. 역사비평사.
- 이스트만, 로이드 지음. 이승휘 옮김. 1999.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1550~1949』. 돌베개.
- 조영한·조영현. 2020. 『엘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과 동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영현. 2020. “은 유통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사 입문』. 동북아역사재단.
- 카나, 파라그 지음. 고영태 옮김. 2017. 『커넥토프래피 혁명: 글로벌 연결 혁명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사회평론.
- 하네다 마사시(羽田正) 엮음. 고지마 쓰요시(小島毅) 감수. 조영현·정순일 옮김. 2018. 『바다에서 본 역사: 개방, 경합, 공생: 동아시아 700년의 문명 교류사』. 민음사.